

외국학술지의 서비스 현장에서 느낀 점

목포대학교 도서관
안 준 식

< 목 차 >

- | | |
|-------------------|-----------------------|
| I. 글을 시작하며 | 2. 달음박치는 현실과 누워있는 서비스 |
| II. 이용 현황 및 실태 | |
| III. 斷想들 | 3.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서의 전문화 |
| 1. 자료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 IV. 글을 거두며 |

I. 글을 시작하며

필자는 문헌정보학을 주제로 학술적으로 글쓰기를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목도 ‘~느낀점’이라고 했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현업사서들의 학문적 갈망, 도서관의 발전을 생각하고 사서들의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주옥같은 연구들이 紙上을 통해 발표되어 왔고, 그 많은 생각들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실천하기도 힘들게 필자의 현실이다.

많은 연구와 학설을 참조하고 가설을 세워놓고 대입해 보면서 그럴 듯 하게 포장해서 이 순간을 평탄하게 넘기고 싶은 유혹도 없진 않았으나 아무런 학술적 가치도 없는 나의 생각들을 학술로 가장하여 논문체로 쓰기를 한다면 허례와 허식이 되고, 잡글이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하나더 추가 된다는 의미밖에 없으니 글쓰기 틀을 무시하고 필자와 견해를 같이 하는 몇 편의 논문들을 여과없이 인용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점과 서비스제공자의 바람직한 자세 등을 두서없이 나열하면서 반성과 변명을 해보고자 한다.

II. 이용 현황 및 실태

각 대학 도서관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목포대학교 도서관(이하 '우리도서관')에서 외국학술지 구입비용은 전체 도서구입비의 약 30~50%(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도 1일 평균 0.3~0.4건(전화질의, 방문, 열람, 복사 등 각각의 건을 구분하지 않고)의 이용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연속간행물실(외국학술지 담당)에 근무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포의 경영자였다면 손님이 없어 이미 몇 번이나 망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필자는 외국학술지 이용자체를 수익으로 계량화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꼭 해야만 한다면 혼자서는 해 낼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동업자를 구해서 할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손님(이용자)을 끌어들이고 입맛을 맞추려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손님(이용자)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불행히도 우리도서관에서는 외국학술지 담당이 제법 인기있는(?) 업무이다. 이는 사서가 전문가로서의 노력, 실력, 그리고 자공심을 버리고 말단행정직의 업무행태를 본받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외국학술지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목포대학교가 종합대학교의 형식을 빌어 50여개의 학과가 백화점처럼 진열되어 있으므로 예산에 비해 많은 자료 구입요구가 있어왔지만 절대적으로 적은 비용때문에 요구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소장자료의 부족이 그 첫째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도서관 이용자들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경제적 비용과 예산외적인 비용(사서의 봉사활동 등)을 산출할 수는 없다. 예산이 많을수록 효과적이겠지만 어느 기관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현실이므로 이 부분을 경영학 학자와 협동연구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그 밖의 이유로는 연구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문제이며, 현장사서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 학부 학생들의 全無한 이용률, 그리고 우리도서관 및 도서관계 전체가 안고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III. 斷想들

1. 자료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학도서관은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학습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헌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조직하며 나아가 그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모든 봉사과 시설을 제공하는 체제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여러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이며 학문연구 및 교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된다. 이렇듯 대학도서관은 대학내의 연구와 교육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정보화 경향, 교수·학습경향의 변화, 대학구성원의 연구풍토 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도서관의 존재이유가 사용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문헌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았을 때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도서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 만족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도서관은 자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도서관의 구성요소를 크게 장서, 사람 그리고 시설로 보았을 때 이용자를 유인하는 도서관의 핵심요소는 장서(자료)이다. 도서관서비스의 근본이 되는 자료의 부족과 도서관 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의 미비함은 대학도서관이 연구·학습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로부터 그들이 오랜세월 익히고 다져왔던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본질과 의미를 미처 되새기지 못하고 형태만 받아들여져 행정가들의 붓끝에서 놀아나다 알맹이는 커녕 겉모습도 갖추기 전에 정보화사회라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인 황새를 쫓고 있는 뱀새의 형국이다. 시착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항상 입으로만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고 다독거리며 실제로는 천대만 받다보니, 예산에서부터 찬밥신세로 전락해 도서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료의 절대적 부족함을 초래했다.

국내에서 가장 나은 대학도서관으로 간주되는 서울대학교도서관의 장서

(1,793,746권 : 국립대학도서관보, 1996))도 외국 대학의 도서관(1994-1995년의 통계에 의하면 매릴랜드대학도서관은 2,464,623권, 컬럼비아대학도서관은 6,664,748권의 장서를 배경으로 학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적고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이 적게는 수천권에서 많게는 수십만권 정도의 빈약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장서의 질이다. 김종엽은 연구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온 서울대학교도서관을 '기호의 무덤', '환멸의 도서관'이라고 부르면서 대학원생들의 술자리에서 도서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되었다고 전한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도서관에서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서로 봉사한 휘트니 코는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인문사회과학분야 서양서를 평가한 결과 심층적이고 폭넓은 자료는 고사하고 대학의 기본적 연구조차 뒷받침할 수 없는 장서라고 진단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이 이러한 지경인데 우리도서관의 경우는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문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환멸만을 삭히고 있어야 하는가? 해방 후 5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실 정도로 기능하고 있을 뿐, 사서들의 땀과 기술이 반영된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배경으로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이 이렇게 환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에는 역사적·사회적 제반 내력과 사정이 있겠지만 김정근 교수(부산대 문헌정보학과)는 '떡(something to eat)'으로 주어지는 도서관장 자리, 그로 인한 도서관장의 비전문성과 직무유기, 도서관에 관한 한 문의한이면서도 수서업무를 비롯한 도서관운동을 장악해온 행정직, 그러한 행정직의 비호아래 쓸모없는 재고도서관을 공급하는 등 서비스수준이 낮은 도서공급업자, 자료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또한 도서관운동을 주도해 나가기도 역부족인 사서진, 대학도서관의 자료와 무관하게 약간의 텍스트북으로 교수의 입심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일방통행식 대학강의 등등의 지극히 한국적인 병폐를 지적한 적이 있다.

필자도 '이때패류 유생의 생태'에 대해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데 우리도서관에서는 단 한 줄도 인용할 자료가 없음에 너무 가슴아팠고 불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필자도 '자료찾아 삼만리'를 했는데 일반 이용자들이야 오죽하겠으며 항상 자료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도서관을 누가 선뜻 이용하고 싶을 것인가? 이러한 고질

적인 자료부족 현상이 오랜시간 동안 이용자들에게 학습이 되어 도서관에 가봤자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팽배해 진 듯 싶다. 이용자의 가장 큰 바램은 자관에서의 자료확보(문헌소장)일 것이다.

우리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 편에 서서 고민하며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도서관만의 특성을 살리는 사건(획기적인 서비스의 제공, 장서개발, 자료확충 등) 한 번 없이 지금까지는 항상 예전에 했던 식으로 '그 나물에 그 반찬' 이었고 앞선 대학 흉내내기에 급급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구성원의 철학의 부재와 토론문화가 낮설고 공무원의 특성상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어서 전문적 으로서 사서의 양심(직업윤리)과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겠기에 반성하는 의미로 우리도서관의 치부를 드러내었다. 이렇게 예산타령만 하고 도서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정말로 우리도서관은 사라질 운명에 처하거나 아웃소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도서관의 부족한 예산을 보다 경제적인 집행을 위해 다른 대학도서관들과 분담수서(협동수서)와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곳 광주·전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분담수서에 대한 논의와 이용자들의 타도서관 이용의 편의 등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간의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예산의 쓰임에 대한 마찰과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고, 소외된 이용자들을 위해서 대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빨리나오길 빈다. 도서관 서비스는 give and take 가 아니라 give 이다.

2. 달음박치는 현실과 누워있는 서비스

필자는 참고봉사와 정보봉사가 거의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온통 정보화를 외치다보니 참고봉사란 말이 정보학 학자들에 의해 정보봉사란 말로 재빨리 치장되었을 것이다. 참고봉사와 정보봉사의 개념을 이것저것 들이대면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반박하고 싶진 않다. 필자도 일단 이 글에서는 시류에 편승해서 정보봉사라고 이야기 하겠다.

정보봉사란 사서가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원이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용

자는 이를 참고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정보나 사실 등을 축출해 내도록 돕는 일체의 도서관활동에 최근의 전자혁명을 중심으로 한 정보시대의 도래에 따른 용어의 변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정보란 말에 맹목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나 기관, 조직 등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존재해 온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도서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적절한 해답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그동안 수집과 정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도서관활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용자와 장서 사이를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던 수동적 역할에서 구축된 장서를 기반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의 탐색, 가공과 제공, 이의 평가 등 보다 적극적이고 이용자 지향의 봉사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정보 중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실제적으로 정보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참고사서들의 활약이 부각되면서 점차 도서관은 소속 사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왔던 것이다. 이렇듯 정보봉사는 도서관의 가치를 제대로 표출하는 궁극적인 도서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도서관은 정보봉사에 보다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여해서 이용자들에게 검증받음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전자기술의 발달을 통한 개인의 정보활동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일부 참고사서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용자층의 변화는 결국 도서관에서의 정보봉사의 기능을 정보제공 중심에서 교육과 지도, 상담기능을 중심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즉, 즉각적인 정보제공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용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능이 되어 버린 시점에서 도서관에서는 다양해지고 있는 정보원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소개 등 이용자들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나 정보를 구하는 것을 돕는 지도나 상담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메뉴얼을 만드는 것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모든 도서관은 정보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이용자에 가려 권리로써의 도서관 이용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한받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이들 이용자들에 대한 봉사방안 마련 등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담당사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활동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명문화된 정보봉사 원칙을 세우거나 도서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봉사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등의 원칙세우기와 이의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도서관환경에서 사서의 중요성이 자칫 약화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가능성은 단순한 정보중개자의 역할에서 사서 스스로 정보의 '평가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정보과학에 대한 오늘의 생각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은 더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사회가 그만큼 더 좋아지리라는 때로 무의식적이고 무모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다. 이제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헤매고 있다. 자칫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정보의 선택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에 매여 정보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사서는 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책무를 감당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 정보원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꾸준히 정보 자체,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단위, 정보를 가진 정보원, 소비자인 이용자 또는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 등 실로 참고사서가 해야 할 작업은 너무 많다.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간다면 정보봉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도서관은 정보봉사가 도서관 활동에 있어 최일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우리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6년전과 비교해도 거의 변화가 없는 장서정책과 서비스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정보화(전자도서관)라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에 치어 너무나 힘겨운 몸짓을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기본기능과 역할도 모르면서(혹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만 쫓다가 제자리와 제자신을 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일류,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의 PR

문구이다. 이 PR에는 음악가 베토벤의 스승이 베토벤에게 “정열은 있다. 그러나 기본이 없다.”라고 한 말이 인용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도서관의 기본을 망각하고 심지어 도서관현장의 근거를 뒤흔들어 놓으며 중국에는 도서관의 종말을 선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과연 우리도서관과 필자에게 정열이라도 있는지 생각해보면 매우 우울하다.

앞으로 도서관은 여타의 사회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효용성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서관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보봉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쓸모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3.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서의 전문화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가능해진 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생활은 물론 도서관 문화를 대폭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는 컴퓨터와 뉴미디어로 처리되는 환경으로 전환되고, 사서는 뉴미디어들에 정통하여 정보의 부가가치화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도서관의 환경변화는 사서로 하여금 컴퓨터 관련기구나 운영시스템에 대한 광범한 지식은 물론 다양한 정보기록매체의 속성, 새로운 정보 축적 및 검색 관련 기술의 이해, 그리고 빠른 속도로 확장 및 발전 추세를 보이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습득 즉, 도서관인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요구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한 노드(Node)로서 존재하는 전자도서관 속에서 전문직 사서의 역할은 요구되는 정보를 공급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안내하며, 급증하는 정보량과 극대화하는 정보요구를 위하여 타도서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을 통하여 대규모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전문직 사서는 자료를 안내하는 수동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적극적 서비스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 방식, 적절한 검색문의 작성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 이용자는 사서

로 하여금 서처(Searcher)의 역할을 기대한다. 서처란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점차 전이되는 현 시대에서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빠른 시간내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이용환경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은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중개자로서 사서는 정보기술의 진전이 미치는 도서관에 대한 파급 효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추구 행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뉴미디어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창출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사회의 유토피아는 현실화되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만 전자도서관으로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미 정보기술의 많은 부분이 도서관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해야 하는 도서관에서는 각 미디어나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충분치 못하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도서관의 위상 변화에 적절히 순응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작금의 도서관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원의 복잡성 및 수량이 증가되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 및 기대치는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종래의 관리를 중심으로 하던 도서관 운영은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또 책을 관리하는 문헌관리자의 개념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적극적 활동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환경속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도서관 관련 조직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도서관 및 의사 결정권자는 정보기술이 미치는 도서관에 대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종합적인 전략개발 및 시행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정보화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분출에 따른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인 뉴미디어가 출현되면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부가가치화는 대부분 도서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전문조사·분석기관의 활동, 서지정보와 全文 정보를 수록한 CD-ROM의 빠르고 편리한 검색정보의 출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 등으로 정보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 등이다. 도서관 전문직은 각종 정보 매체나 네트워크 등 뉴미디어의 성능이나 이용지식 그리고 사

용환경에 적용하는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도서관 본연의 정보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과 관련된 작금의 정보 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전문직 사서는 다양한 정보원과 이용자의 중개자로서 정보통신 기술의 도서관에 대한 파급효과, 이용자의 정보추구 행태에 대한 연구, 도서관에서 활용되는 뉴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변화속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직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사서들 스스로의 자세변환이다. 외부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고도의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직 사서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써 현상을 타파하고 도서관의 기본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일 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IV. 글을 거두며

필자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직중인 김정근 교수의 외침이 이 시대의 도서관과 사서의 자세,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김교수의 글을 읽으며 가슴벅차오름을 느꼈고, 눈만 뜨면 정보화와 전자도서관을 외치는 이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혼돈스러움이 구체화되고 제대로 된 정보봉사의 실천 욕구가 불쑥 솟아났다. 좀 더 빨리 김교수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접어두고 이제서라도 만나게 됨을 감사히 생각한다.

필자는 한번도 도서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업무만 혁혁대며 그것도 겨우 해내는게 필자가 도서관에서 한 일의 전부였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모두 읊기지는 못했지만 이 글쓰기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게 너무 기쁠 뿐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대학도서관 이용자서비스의 평가”. 도서관문화 Vol. 39, No. 1.
- 기민호. “미래의 도서관 봉사”. 도서관문화 Vol. 34, No. 5.
- 김정근, 이용재. “참을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도서관문화 Vol. 37, No. 4.
- 김정근, 김영기 “다시 한 번 ‘미래도서관 담론’에 대하여”. 도서관문화 Vol. 37, No. 5.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 1995.
- 손정표. “21세기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 도서관문화 Vol. 37, No. 5.
- 이용훈. “정보봉사,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도서관문화 Vol. 37, No. 3.